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담당 :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교무, 010-6732-4438)
제목	[보도자료] 사드 장비 추가반입을 위해 소성리의 일상을 짓밟은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 기습적인 사드장비 추가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날짜	2020. 05. 29. (총 3쪽)

## 보도자료

사드 장비 추가반입을 위해 소성리의 일상을

짓밟은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

기습적인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

문재인 정부는 금일 4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한 기습작전을 통해 또 다시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 장비를 추가 반입시켰다. 국방부는 사드 노후장비 교체(노후 사드 요격미사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관상 사드 미사일과 사드 발사대는 거의 비슷하며, 주한미군이 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반입된 장비가 사드 발사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드 요격 미사일이든 아니면 사드 발사대이든 이번 기습적 장비 반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정식, 추가배치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로 미중대결이 격화되고 시진핑 방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미국의 엄포에 미국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주동적으로 풀어나가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늘 지난 3년간 반복해왔던 것과 같이 소성리를 희생양으로 던져주고 미국 비위를 맞추는 것을 선택했다. 우리는 사드 장비 추가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미국 MD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한미일 MD 구축과 3각 군사동맹 구축케 함으로써 대중 3不정책을 무력화 하고 평화, 번영, 통일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어가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드기지 완성을 위한 기지공사를 장병들을 위한 환경개선이라 언론플레이한 것도 모자라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공사 장비 반입이라며 속이며 사드의 정식 배치를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단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었다. 사드 부지공여는 법적 근거없이 자행되었으며 1, 2차로 쪼개어 진행되는 사드 부지 공여는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다. 사드는 임시 배치에 불과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 했지만 계획의 정당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지도 않았다. 또 다시 공사장비를 반입함으로써 사드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를 또 다시 강행하고 있다. 부지 공여도 완료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인가? 이뿐인가. 기지공사비를 비롯한 사드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으나 이미 미국이 2018년 사드 부지 설계비에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하고, 2021년 탄약고 공사에도 버젓이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하겠다는 데도, 정부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

오늘 기습작전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 사드기지가 있는 한 오늘의 지옥 같은 시간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군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언제든지 경찰을 동원해 소성리를 봉쇄하고 주민들을 끌어내며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5.18 기념사에서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고 싶다. 오늘 소성리에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자는 누구이며 평범한 일상을 지키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사드기지가 있는 한 언제든지 정부에 의해 우리의 삶과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한 이상, 우리는 사드기지 완성을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더욱 뚜렷해졌다.

우리는 불법적 사드공사를 막고, 또 다른 추가 배치를 저지하는 한편, 소성리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자국의 국민을 서슴없이 희생양으로 던지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을 위하여서는 코로나19의 위기조차도 무시하고 국민을 짓밟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사드기지 미군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도 오늘 이후로 결코 소성리를 쉽게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2020. 5. 29

# 사 드 철 회 평 화 회 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